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고 남 식

(한국·대진대학교)

《요 약》

The Jeung-san(1871-1909)'s revelation is the important meaning. Jeung-san hands down the two revelation for solution of Chosun postscript problem and presentation of Utopia. One time Suwun(1824~1864) is handed down and afterwords Jeongsan(1895-1958) after Jeung-san's Hwachon at 1917. Two revelations accomplish the day of the Jeung-san in public but the character is the countenance. The Jeung-san's revelation to Suwun solves present generation problems, the Jeung-san revelation to Jeongsan is continuously to do the day of the Jeung-san even after Hwachon. The Jeung-san stepped on the failure of the Donghak and on the upper lifestyle with the Cham-Donghag it opened the different side. The Cham-Donghag is concerned about the future Chosun to be the first-class country and Chosun Haewon is related with Danju Haewon. Danju Haewon is to be a fifty years religious study of Jeongsan. The Jeung-san's Gangse is to accomplish the Sungsa-jaein and it actualizes the appearance of Dotonggunja. Jeongsan is trying to do the religious activity about Sungsa-jaein and Dotonggunja as the Daedumok. The Jeung-san starts from revelation to the Suwun, to accomplish thought of the Cham-Donghag after Hwachon. The Jeung-san continuously has handed revelation led from religion activity, let Jeongsan do fifty years religious study. In the long run, it completes the fact that it accomplishes the outer space and the Chosun society of new setup, and a sacred religious work has been arranged the advocate of the Cham-Donghag through the Jeongsan by Woodang(1917-1996)'s Daesooinjinhoe(1969).

I. 서론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¹⁾은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로 조선조

1) 대순진리회에서 신격위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임.

후기의 혼란과 난제들을 극복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도수(度數)에 따라 진행하여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이상세계를 열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이상세계의 제시에 있어 증산이 내린 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증산은 두 번의 계시(啓示)를 내렸는데 한 번은 1860년 금산사 미륵금불(彌勒金佛)에서 수운(水雲, 崔濟愚, 1824-1864)에게 내린 것이고 그 다음은 화천(化天)²⁾ 후 1917년에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³⁾에게 내린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증산의 두 번의 계시에 주목해서 수운에게의 계시와 정산에게의 계시를 비교해서 생각하며, 증산이 조선 사회의 개혁과 우주적 구원을 위해 창시한 <참동학> 사상이 증산의 종통을 계승한 정산에게 이어져 정산의 포교(布敎)활동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증산이 수운에게 계시를 내린 후 그 계시를 거두고 화천한 후에 다시 정산에게 계시를 내린 것은 정산에게 내린 계시가 증산의 가르침을 종교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일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증산의 수운에게의 계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주목된다. 두 번의 계시가 모두 크게 보아 증산의 일을 천하에 이룬다는 것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즉 수운에게의 계시는 증산이 당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정산에게의 계시는 증산의 화천 후에도 증산의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수운에게의 계시를 당대 조선을 중심으로 천지공사를 행한 증산이 기존 체제를 변혁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가는 전초적인 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산의 천지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정산에게의 계시는 증산이 인신(人身)으로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하고 화천 한 후 증산의 일을 계속적으로 종통을 전수 받아 종교적으로 증산의 유지(遺志)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존 연구를 보면 대부분 수운의 동학 창도가 한울님으로부터 주문(呪文)과 영부(靈符)를 받아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산 사상이 후에 출현해서 동학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 연구 경향과 다르게 수운의 계시가 대순사상을 창시한 증산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동학 또한 증산의 종교적 행적을 이루기 위한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토대 위에서 진행된 연구로 기존의 수운의 동학 창도에 대한 시각과는 그 맥을 달리한다.

이 글은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교적 진개를 중심으로 증산의 두 번의 계시(1860년의 수운, 1917년의 정산) 가운데 수운의 득도와 동학 창도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연관시킨 연구이다. 이에 이 논문은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수운에게의 계시가 증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산 관련 경전 자료로부터 논의를

2) 증산(1871-1909), 정산(1895-1958), 우당(1917-1996)의 죽음을 말하는 용어.

3) 대순진리회에서 신격위가 <조성옥황상제(趙聖玉皇上帝)> 임.

시작해서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에 대해 증산이 새로이 참동학을 주창해 어떠한 종교적 내용들로 동학의 실패를 딛고 조선 후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했는가를 2장에서 다루고, 3장에서 증산의 정산에게의 계시가 갖는 의미를 2장에서 제기한 증산의 참동학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정산이 증산의 종통(宗統)을 이어 50년(1909-1958) 공부로서 추진한 종교적 행적들을 그 특징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본 후, 증산의 참동학의 지향성과 관련하여 특히 해방 후 정산이 종교적 행적을 행한 만동묘, 해인사, 마하사 등에서의 공부를 중심으로 참동학 사상과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⁴⁾ 이와 같은 논의에는 증산의 참동학의 특징인 해원(解冤)과 성사재인(成事在人)의 논리가 기저에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수운의 득도와 증산 참동학의 지향성

증산은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인세에 강세해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만드는 종교적 성업(聖業)을 하였다. 신성·불·보살들이 증산에게 하소연한 이유는 천지가 혼란하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증산은 구천에서 대순(大巡)하여 인간세계로 내려 왔는데 증산이 인식한 현실세계의 문제점은 상극(相克)·원한(冤恨)·서양 물질문명의 폐단 등이 주요인으로 되어 있다. 우주적 구원을 위해 증산은 신적(神的) 상태로 구천(九天)에서 하강하여 조선 금산사(金山寺) 미륵금불(彌勒金佛)에 머물렀는데 최초로 종교적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과 교감(交感)한 것은 최제우였다.⁵⁾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三十年)을 지내다가 최 제우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9절)

위에서 증산이 수운에게 계시를 내렸으나(1860) 수운이 대도(大道)의 참 뜻을

4) 이 논의는 <교운 2장 연구> (대순진리회 연구위원 편저, 《대순논집》,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341-358쪽)와 같은 책의 <전경의 구성연구> (305-340쪽)를 참조로 하였다.

5) 이에 대한 기록은 《동경대전》, <포덕문>에 나타난다.

밝히지 못하자 증산이 수운에게 내렸던 계시를 거두었다고(1864) 나타난다. 동학의 창창(創唱)은 당초에 안동 일원과 함께 추노지향(鄒魯之鄉)의 고장으로 여겨지는 경주일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영남에서의 유교문화의 상대적인 위기의식이 점고했고 그 반사적인 결과로서 동학이 일어났다.⁶⁾ 수운은 유불선을 사상적으로 원용하여 유교의 우주론에서 삼재론과 음양오행설을 수용하였으며, 인의예지와 삼강오륜의 사회적 윤리를 시천주의 종교윤리로 발전시키고 동학의 바탕을 유교의 심학(心學)에 두었다. 또 수운은 공자의 도를 긍정하는 단계에서 더 발전하여 유교의 형식화된 합리주의를 동학으로 종교화함으로써 자신의 도를 겉으로는 유교적 지식과 윤리관을 그대로 포용했으나 내면으로는 유교의 대(對)인간적 종교윤리로 발전시켰으며, 이외에도 군자, 소인, 천리, 천명, 성(誠), 경(敬), 태극, 무극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전통적 사회관습에 젖어 있던 사대부 신분계층이 동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⁷⁾ 이와 같은 수운의 성향은 증산이 수운에 대해 유교의 전헌(典憲)에 빠져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해 천명과 신교를 거두었다는 위의 예문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제 증산은 수운의 뒤를 이어 새로운 방법으로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1871) 이는 신성·불·보살의 소망을 들어주고자 자신이 직접 가르침을 전해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증산의 우주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이 금산사 미륵금불에서 수운에게 계시를 내리기 이전인 구천(九天)에서 세상의 문제를 신성·불·보살들로부터 하소연으로 들은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음에 기인(基因)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수운에게 계시는 문제해결의 전초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⁸⁾

증산은 동학의 발생 자체가 자신의 계시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증산은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준 상제 또는 한울님으로 믿어진다. 신계의 절대적 권능을 지닌 최고 주재자가 인간 세상에 직접 강림했다는 증산의 주장은, 이전의 한국종교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지상

6)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일지사, 1985, 358쪽

7)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1996, 40-43쪽.

8) 이 논의는 수운(水雲)의 득도가 <한울님(上帝)>으로 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경대전》을 볼 때, 이 동학 관련 자료의 <한울님>이라는 존재는 증산을 가리키며, 증산이 인신강세(人身降世)이전에 머물렀다는 금산사 미륵금불에서 수운에게 계시를 내린 것이 된다. 《동경대전》의 <상제>가 <天師(강증산의 존칭)>라는 최초의 기록을 《증산천사공사기》(1926)를 통해 보면 증산의 제자 차경석(1880-1936)의 구술로 되어있다. 《謹按 天師께서 大法國天啓塔 계시다가 西洋에서 失敗한利瑪竇를 다리시고 天下에大巡하시다가 金山寺三層殿金彌勒에臨御하시 삼십년을경한후 최제우의게체제대도를啓示하셨더니 濟遇가능히儒家典憲을 超越하여 大道의眞趣를 闡明치못함으로 드피어天命을거두시고 甲子로부터八卦에應하여 八年을經한後 辛未에親히誕降 하시니 東經大典과및歌詞中에이른바[上帝]는 甞 天師를이름일진저.(此節은車京石傳述)》(이상호 편저, 《증산천사공사기》, 상생사, 1926, 11쪽)

의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주었으나 그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자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산교의 믿음은, 세계종교사에서 독특하게 평가받아야 할 정도이다. 증산은 동학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증산은 자신의 전통의 재통합과정의 실제적인 모델로 동학을 상정했다. 증산은 동학의 통합정신을 수용하여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인물이다.⁹⁾ 즉 증산의 수운에게의 계시는 대순사상에서 조선이 처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일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¹⁰⁾ 퍼나가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 된다.¹¹⁾ 이러한 면은 표면으로는 증산이 수운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면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수운의 해원과 조선의 구원 나아가 이를 통해 삼계(三界)를 구원하기 위함이다.¹²⁾ 이러한 분석은 후일 증산에 의해 수운이 작란(作亂)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증산은 치란(治亂)한 사람으로 묘사한 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명숙(明叔) 전봉준(1854-1895)의 동학운동에 대해 증산이 천하의 난을 움직였다고 한 것은 수운의 득도가 증산의 의도된 구원의 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더욱 확실히 해준다.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가指南車(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로다. 그러므로 최제우는 작란한 사람이오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전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교법 3장 30절)

증산은 동학과 동학 운동을 통해 일련의 치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동양을 서양으로부터 지키고 조선을 중심으로 치란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포교 공사를 위해 증산은 수운의 득도가 불러 올 서세동점(西勢東漸)하의 여파를 조선을 중심으로 인지하고 동학을 통해 증산의 종교적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한 국면을 구축하고자 천지공사를 보았다. 즉 수운에게의 계시는 일면 수운의 소망을 들어주려는 면과 함께 증산의 광구천하를 위한 포교 공사를 위해서이다.

증산교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가려질 수 있을 것이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세(西勢)에 대항하고 부패한 왕조(王朝)에 대항하던 동학의 저〈대항의 원리〉와는 달리 보다 승화(昇華)된 종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이〈민족 창조(創造)의 원리〉로 귀결되도록 한 데에 집약될 수 있다.¹³⁾ 증산교 운동은 조

9)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논문, 1995, 175쪽

10) 강세(降世)후에 증산은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을〈참동학〉이라 하였다.

11) 이외 동학과 관련 증산이〈동학가사〉를 인용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일이 나타난다.

12) 증산은 후일 수운이 유교의 전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계시와 관련 증산이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을 듣고 계시를 주고자 했다면 금산사 미륵금불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이 구천에서 최제우에게 계시를 내릴 수도 있었다. 이와 함께 증산의 권능을 고려할 때 미륵금불에서 증산이 최제우에게 계시를 내린 것은 증산의 일련의 종교적 행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된다.

13) 배용덕, 《한민족과 천지공사》, 증산진법회, 1976, 14쪽.

선 말의 와해된 신념체계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한 사회운동의 하나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동학혁명에서와는 달리 비세속적인 차원에서 그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강증산은 한번도 선천적인 동세기벽에서와 같은 왕조변혁에 의한 중생 해방이나 민중구원을 주장한 적은 없다. 바로 이점에서 강증산 사상은 모악산 금산사의 우주적 전 생명사적 전 인류적인 후천 개벽의 큰 태두리와 일치하되 직접적인 무장 투쟁 등과는 그 방법적인 차이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는 후천 개벽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지만 선천적인 방편에 의한 후천 개벽의 조기 달성, 시대 경륜으로 좁혀진 동학 사상에 의한, 그리고 무장 투쟁에 의한 순수히 자력적인 혁명 성취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동학과 동학운동에 대한 증산의 생각은 후일 종교적으로 다듬어져 세상 구원을 위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펼쳐져 <참동학>으로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수운을 작란한 사람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증산이 동학혁명의 실패를 예견하고¹⁶⁾ 원한이 맺혀 있는 동학 관련 신명(神明)의 해원¹⁷⁾과 후일 참동학으로 증산의 사상을 표현한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11절)

증산은 과거 동학의 실패를 딛고 진정한 동학을 다시 실현하는 참동학 사상

14)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1994, 428쪽.

15) 김지하, 《동학 이야기》, 솔, 2000, 161-162쪽.

16)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고서 여름 어느날 <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17)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중략)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리라”(공사 2장 19절)

을 주창하여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과 활로를 열어 주고자 하였다. 참동학의 기치아래 증산은 조선의 정체성을 천지공사를 통해 정립시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조선이 후천의 주역이 되게 하였는데 참동학은 증산의 이상세계 건설의 이념이 응축된 것으로 동학에 호응하던 조선 민중의 정서에 맞아 새로운 조선 사회건설에 희망적 메시지를 주었다.¹⁸⁾ 참동학은 수운의 동학을 보완 수정한 것이 아닌 증산의 독창적 사상으로 위의 예문에 의할 때 조선의 해원과 도통군자(道通君子)의 산출(産出)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중 도통군자의 산출은 인존(人尊)사상의 터전 위에 하늘이 일을 이루던 시대(成事在天)가 가고 이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라는 성사재인(成事在人)론에 근거한다. 즉 약소국 조선의 해원과 함께 참동학의 일면은 조선의 수려한 풍수에 기인하여 도통군자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면을 축으로 인간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사재인의 차원에서 세계를 구원하고 나아가 우주적 선경 세계를 창출하여 증산을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준다는 증산의 권능과 관련된 사상이다. 이에 증산은 자신을 수운이 이루지 못한 후천(後天) 지상선경(地上仙境)을 열어주는 존재로서 동학에서 열망하는 대선생(大先生)과는 다른 차원의 대신할 대(代)자를 쓴 대선생(代先生)으로서 참동학을 표방하였다.

이상을 볼 때 치난(治亂)의 관점에서 증산이 수운에게 계시를 내려 시천주(侍天主)라는 주문을 준 것과 후일 증산이 직접 인신(人身)으로 탄강해서 주창한 참동학에서 구원과 관련 응용된 두 가지 측면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증산의 강세지인 남조선(南朝鮮)을 중심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면, 둘째는 구원을 위해서는 증산의 인신강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⁹⁾

첫째 요소인 조선의 해원은 남조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일본(日本)의 해원과 조선의 독립 후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의 공사를 이루는 일로 전개된다. 참동학의 지향하는 바인 조선의 해원은 천하를 구원하는 일이 증산이 강세한 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포교와 수행이 종단을 통해 진행되고, 다른 한 편으로 당시 무명(無名)의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증산의 참동학 안에서 국가적 해원으로 그 국면이 전환되어 남조선이 모든 나라를 살리고 향후 조선이 상등국(上等國)이 된다는 것이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 지황 인황(天皇 地皇 人皇) 후 천하지대금산 모악산하(天下之大金山 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

18) 참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76쪽.

19) 이중 증산의 인신강세는 수운의 동학창도로 시작된 혼란에 대한 치난(治亂)과 이상세계를 이루고자 구천(九天)에 있던 증산이 천지공사를 인간계에서 행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증산이 인간의 몸으로 구원의 행적을 행했다는 의미가 더해져 일련의 완전성을 이룬 면을 보여 준다.

언(能言)하고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라²⁰⁾ 만국활계남조선 청
 풍명월금산사 문명개화삼천국 도술운통구만리(萬國活計南朝鮮 清風明月金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²¹⁾란 구절을 외워 주셨도다.(예시 14절)

위에서 모악산 아래 금불이 능히 말을 한다는 것은 증산이 인간으로 강세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과 삼천국 그리고 도술이 구만리에 통한다는 것은
 증산의 천지공사와 이후 정산(鼎山, 1895-1958)의 종통 계승 하에 이루어질 예
 언적 일들이며 증산의 평천하를 이은 일련의 치천하와 관련된 미래상이다. 천하
 는 만국활계남조선의 단계에서 점차 청풍명월금산사, 문명개화삼천국, 도술운통
 구만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증산의 참동학 하에 조선의 해원이 이루어지고
 후천선경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제 조선은 증산의 강세지(降世地)이고 증산
 의 공사에서 후천(後天) 문명의 중심지가 됨으로 조선이 처한 19세기말의 난세
 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천지공사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조선을 상등국화하고 만국활계남조선의 형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면을 전환시
 켜 당대 조선 주변의 국제정세 및 대내 상황을 변환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증산의 계시에 의한 수운의 득도를 연결 지어 보기로 한다. 먼저
 증산은 당시 몰락한 양반가 서자(庶子) 출신으로 민중구제를 갈망하던 수운의
 소망을 위해 계시를 내린다. 수운은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초인간적인 운명으
 로 돌렸고 그 운명을 하느님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달렸으며 그의 모
 든 것을 절대적인 존재 곧 하느님에게 걸었으며 이러한 절대적인 경지에서 수
 운은 어떤 결정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²²⁾ 이후 동학의 실패 후에는 증
 산 자신이 인간으로 탄강해서 동학의 실패를 승화 고양시켜 참동학 사상으로
 명명하여 성공시키는 행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천지공사이다.²³⁾

둘째로, 도통군자와 관련해서 증산의 인신(人身) 강세가 갖는 의미를 보기로
 한다. 증산의 인신 강세는 수운에게 내렸던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화현(化現)한 일이다. 증산이 인신 강세를 한 것은 후일 증산이 의도하

20) 천황 지황 인황 뒤에 천하의 큰 금산사에 금불이 능히 말하고 육장금불이 전녀(姜)로 화하
 여 되었다.

21) 모든 나라가 살 계책이 남조선이요 맑은 바람 밝은 달의 금산사라. 문명은 삼천나라에서 개
 화되고 도술은 구만리를 통하네.

22) 최동희, <수운의 기본사상과 그 상황>,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 1992, 110-111쪽.

23) 조선의 해원과 함께 향후 조선의 상황을 증산의 종교적 가르침을 펼쳐나가기 위한 국면으
 로 전환하고자 증산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 몇 가지 천지공사를 보았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원한을 풀고 나아가 조선이 처한 난경을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였다. 즉 증산은 일본에
 게 천하통일지기(天下統一之氣)를 붙여 주어 러시아 등 외세를 물리쳐서 일시적으로 동양의
 주도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임란시(壬亂時) 갖고 있던 원한을
 풀게 한 것이다.(공사 1장 12,3절; 2장 4절 참조)

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데, 당대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 해결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중 포교는 천지공사의 일부분에 속한다. 증산 천지공사를 인간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면이 인간완성인 도통군자(道通君子)를 이루는 일이 된다. 증산은 일만 이천명의 도통군자가 출현하여 도(道)를 창성(昌盛) 시킨다고 하였는데, 도를 창성 시킬 도통군자는 천지인 삼계(三界)의 주체적 존재로 우주적으로 맡은 일을 하나같이 완성된 이들이다. 이렇게 우주적으로 일을 할 완성된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 세계가 천계나 지계 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갖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즉 구천(九天)에 천신적 존재로서 위치하던 증산이 인간으로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함으로써 우주적 구원의 일이 인간 세상을 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조선 사회는 심한 인간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증산사상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중의 하나가 인간중심적 사고이다. 증산은 신명보다 인간을 더 높여 인간으로 하여금 신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신명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천지공사 중 신명공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증산은 인본 사상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고 가르쳤다.²⁴⁾ 이에 증산의 인신강세와 인간으로서 천지공사를 행해 우주적 구원을 행한 성적(聖績)은 강세 이전의 천신적 위치에 새로운 종교적 구원의 의미를 더한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증산의 권능으로 신계와 인계를 총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증산의 명(命)에 따르는 우주적 동력(動力)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게 된다는 성사재인(成事在人)의 원리를 열게 된 기원이 된다. 이처럼 증산의 당대 문제 해결은 인존 성사재인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증산은 인간적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면과 함께,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난관을 해결하고, 향후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중국적으로는 성사재인의 원리에 따라 우주적 질서를 바꾸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울러 시초에 증산의 강세가 이루어져야 우주가 구원되어 진다는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을 해결해주는 종교적 행적이 된다. 요컨대 증산의 인신 강세는 인계를 포함해 삼계적 차원의 완성된 세계를 만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천상제로 천신적 위치에 있었던 증산이 처음으로 강세해 구원을 행하고 가르침을 인간에게 베풀어²⁵⁾ 신앙적 경배(敬拜)를 받음으로써 신, 인간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삼계를 구현하는 절대적 정점(頂點)에 이르게 됨을 보여 준다.

24) 김홍철, <증산교 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IV, 연세대 출판사, 1992, 75쪽.

25)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나니(권지 1장 7절). 신축년은 1901년을 가리킨다.

Ⅲ. 정산의 종통 계승과 참동학 사상의 전개

증산은 참동학의 주창과 포교에 있어 자신에 의한 평천하(平天下)와 함께 이후 증산을 믿는 이들에 의한 치천하(治天下)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제께서 류찬명과 김자현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 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중략) 내가 평천하 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31절)

위에서 증산의 평천하는 참동학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고 치천하는 증산의 참동학을 펴는 일인데, 예문에서 증산이 치천하에 대해 포덕과 주문을 말한 내용에서 치천하는 증산의 덕을 펴는 포교와 종단의 주문 등과 관련 있는 수행을 통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즉 치천하는 중국적으로 증산의 평천하를 기저로 평천하에 수반되는 연장선상의 순차적인 증산의 후계자의 행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장에서 다룰 정산의 포교는 증산의 종통을 이어 받은 이로써의 치천하에 해당되고, 정산의 종교적 행적을 분석하는데 적용되는 바탕은 참동학의 지향성인 조선 해원과 도통군자 사상이며, 후에 이 두 중심사상은 정산이 창건한 종단 무극도에서 차차 교리로 체계화 되어졌다. 이에 이 장에서는 정산과 관련된 대표적 공사를 조선해원, 도통군자와의 상관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정산 대(代)에 있었던 증산 참동학의 전개양상을 보기로 한다. 이러한 때 정산은 포교 50년 공부를 한 인물로 증산과는 득도, 단주해원, 대두목 공사 등으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난다. 이제 대순교운사(大巡教運史)²⁶⁾에서 증산의 포교의 명맥(命脈)이 정산으로 이어지며 근·현대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보기로 한다. 그 세 가지 면은 첫째로 정산의 득도가 앞장에서 살펴 본 수운의 득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둘째는 조선해원과 연관된 단주 해원이고, 셋째는 도통군자와 관련된 대두목에 관한 것이다. 이중 둘째, 셋째 내용에서 조선 해원은 요(堯)의 아들인 단주(丹朱) 해원으로²⁷⁾, 도통군자는 대두목 공사로²⁸⁾ 증산의 종통을 받은 정산과 관련되어 있고, 아울러 단

26) <교운(教運)>은 증산의 종교적 행적의 시종(始終)에 관한 운세를 말한다. 증산이 주창한 참동학의 전개에서 정산의 행적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교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7)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공사 2장 3절)

28) 내가 도통술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교운 1장 41절)

주 해원과 대두목 공사는 모두 완성된 인간²⁹⁾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면에서는 앞장에서 도통군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성사제인론과 연관되는데, 결국 이 토대 위에서 정산은 치천하의 관점에서 참동학의 유지(遺志)를 펼친 것이다. 이상의 논의 위에서 참동학 사상이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정산의 득도가 수운의 득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통해 정산의 종교적 행적의 의미를 참동학의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정산의 포교 50년 공부에서 득도는 종교적으로 계시를 받은 인물이 새로운 종교적 행적을 해나가는 계기가 된다. 정산은 득도로 증산의 대순(大巡)한 진리를 접하고 그에 동화(同化)하여 증산의 예언적 내용인 포교 50년 공부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된다. 이는 정산이 계시를 경험하기 전의 생각이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한 후천선경 건설의 의지와 통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정산의 득도는 수운의 득도와 비교해서 증산이 인신강세로 종교적 행적을 펼친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 수행한다는 면이 다르다. 증산이 정산에게 계시한 일이 수운에게의 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정산의 득도는 증산이 인간으로 화현하여 천지공사를 행하고 화천(化天)하여 내린 계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면이, 인간으로 강세하기 전의 신적(神的) 존재로서의 증산에게서 계시를 받은 수운의 경우와 다르다. 즉 인간으로 강세하여 구원의 행적을 행하고 화천하여 계시를 내린 것은 수운에게 내린 계시와 구별되며, 이는 증산이 인간으로 강세하여 구원의 행적을 거쳐 정산에게 계시를 내림으로써 증산의 특별한 의지를 정산을 통해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수운에게 내린 계시는 증산이 인간으로 강세한 적이 없는 신적 상태에서의 계시였고 정산에게의 계시는 증산이 최초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일련의 천지공사라는 구원의 행적을 마치고 다시 신적 상태로 돌아가서 내린 완성된 차원에서의 계시라는데 차이가 있다. 이는 신계와 인계를 모두 포함하는 삼계적 차원의 의미가 정산에게의 계시 안에 담겨 있고 증산의 강세와 함께 열려진 도통군자 산출이라는 증산 참동학 사상의 한 지향점과 연계성을 갖는다.

한편 이러한 성사제인적 관점과 관련해서 정산의 공부는 포교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정산의 포교는 무극도(無極道, 1925-1941)를 통해 증산이 인신강세(人身降世) 하에 천지공사라는 우주적 구원의 일을 전하는 것으로 맥을 같이 한다. 정산의 포교는 인간계에 중심을 두고 진행된 행적이 되며, 이것은 증산의 인신강세가 갖는 의미가 인계에 도통군자를 출현시켜 성사제인의 일을 이룬다는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면은 증산이 참동학으로 예언한 포교가 50년 간의 정산의 공부를 통해 표출된 일이 된다. 이 포교 50년 공부는 수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정산에게 내려진 계시가 수운과 다르게 증산 인신 강세 후의 계시라는 특이점을 저변에 특징적으로 담고 있다. 결국 증산 참동학의 한 주

29) 이를 증산은 <도통군자(道通君子)> 로, 정산은 <지상신선(地上神仙)> 으로 표현하였다.

장인 성사재인론(成事在人論)이 정산의 포교 50년 공부로 이어져 공부의 기저가 된 면은 주지의 사실로 정산의 공부에서 나타났으며, 나아가 정산이 포교 공부를 수행한 일은 증산의 행적을 이어 인간으로서 이른 종교적 행적이 되므로, 이를 통해 증산과 마찬가지로 정산 또한 인간의 성씨(姓氏)가 신격위(神格位)에 포함된 위격(位格)으로 삼계를 통해 새로운 위상에 이른 일이 된다.³⁰⁾

둘째로 참동학 사상의 조선해원과 관련된 단주해원을 통해 정산의 종교적 행적의 의미를 보기로 한다. 조선해원과 성사재인론에서 도통군자는 증산으로부터 도통줄을 받아 도통을 낼 존재로 대두목 공사와도 관련되는데 이 대두목은 증산의 명을 받은 존재가 되어 단주를 가리킨다. 그런데 논의의 요점은 단주해원의 대명제인 단주수명(丹朱受命)³¹⁾에 귀결된다. 단주수명론은 단주가 명(命)을 받아 조선해원을 이루고 나아가 증산의 참동학 사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증산이 권화적(權化的) 존재로서의 인신강세 후 최초로 명을 받은 정산이 계속적으로 후천선경을 이루는 종교적 행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명을 받지 못했던 단주의 해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조선의 해원에 해당되는 조선국운을 돌리는 일과 연관되며, 아울러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이라는 지혈(地穴)을 중심으로 두 해원의 공통점이 맺어지고 있는 것은 해원 논리의 실타래가 통합적(統合的) 관점에서 풀어야 됨을 말한다. 아울러 조선의 상등국화, 조선의 득천하, 남조선의 세계구원, 도통군자의 출현 등의 일이 증산의 의지인 후천 이상세계 건설과 맞물려 있고 나아가 이는 단주가 명을 받아 이루어야 될 목적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에 조선해원과 단주해원이 연결성을 갖는다.³²⁾

또 부친인 요(堯)로부터 왕위를 전수 받지 못했던 단주의 포부는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강세해서 천지공사를 한 증산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³³⁾ 증산의 화천

30) 이는 증산이 강(姜)씨로서 대순신앙에서 <구천옹원보성보화천존 강성(姜聖)상제>로 정산이 조(趙)씨로서 <조성(趙聖) 옥황상제>로 신격화된 면에 근거한다.

31) 단주수명은 전주 구릿골 소재 《동곡(銅谷)약방》 관련 약장(藥穢)공사에 나타나며(공사 2장 9절), 이는 세상의 무도(無道)함으로부터 발생된 병(病)을 고치는 의통(醫統)공사에 속한다.

32) 줄고, 앞의 논문, 2003. 6, 83쪽.

33) 이는 《서경(書經)》에서 단주에 대해 불초해서 요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으며, 우(禹)가 단주가 오만하고 배를 띄우고 놀기를 일삼았다는 내용과는 배치되지만 본 고에서는 강증산 관련 타 경전(《도전》과 《천지만법전》)에 등장하는 단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상식적으로 증산이 당시 명(命)을 주어 자신의 종통을 이어 계속적으로 천하사를 하게 하는데 있어, 불초하고 오만하며 놀기를 일삼은 단주의 후신(後身)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았다는 면에 의거한 것이다. 참고로 《서경》과는 다른 《천지만법전》의 단주에 대한 새로운 평가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륵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고(萬古)의 원한 가운데 단주(丹朱)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요(堯)의 아들 단주가 불초(不肖)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나 전하여 내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단주가 불초하였다고 하지만 조정(朝廷)의 신하(臣下)인 방제(方劑)도 단주를 계명(啓明)하다고

(1909) 후에는 특정 인물이 증산의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단주 해원 공사인 단주 수명의 말 뜻대로 단주가 증산의 명을 받아 계속적으로 증산의 화천 후에도 증산의 일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나간다는 의미이다. 증산 관련 경전에 나타난 단주의 대동세계(大同世界)에 대한 포부는 이제 증산의 조선상등국, 만국활계남조선의 공사(公事)를 이어 단지 한 지역으로서의 조선이 아닌 증산의 강세지(降世地)와 천지공사의 장소라는 면에서도 그 의미는 범 우주적인 차원의 논의들과 관련된다.³⁴⁾ 이와 관련 정산이 증산 화천 후 1917년 계시를 받은 일은 증산으로부터 명(命)을 받은 것이 되며, 단주수명 공사의 성적(聖績)이다. 이후 정산은 인간계에서 증산이 목표로 하는 후천선경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행적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간다.

셋째로 참동학 사상의 도통군자와 관련이 있는 대두목 공사를 통해 정산의 종교적 행적의 의미를 보기로 한다. 이는 대두목이 도통줄을 증산으로부터 전해 받아 도통군자 공사를 해나간다는 면이다. 참동학에서의 도통군자 공사는 후천(後天)에서는 천하의 일을 인간이 이룬다는 성사재인(成事在人)과 관련되는데 도통군자는 증산의 주장에 의하면 대두목과 유불선 도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대두목은 증산의 종통을 이어 받은 존재로서 계속적으로 증산의 참동학의 가르침을 펼칠 인물이 되는데 이와 관련 증산은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포교할 대두목의 미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教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중략)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37절)

위에서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라는 것은 증산의 화천 후 가르침을 펴는 일이 50년 동안의 공부로 마쳐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산의 가르침을 펴는 포교 50년 공부를 한 인물은 증산의 명을 받은 종통(宗統)의 전수자가 되며, 종통 전수

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남만(南蠻)과 동이(東夷)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찌 불충(不忠)한 다툼이더냐. 온 천하를 대동세계(大同世界)로 만들자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말다툼이더냐 하시니라. 한 중도가 여쭙기를 우(禹)가 단주(丹朱)의 허물을 들어 말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못된 짓을 행하고 물 없는 육지에 배를 띄우려는 것처럼 어거지로 행패를 하고 때를 지어 집안에서 음탕하게 놀았으며 그리하여 그의 후손도 끊기었다 하였사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단주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못된 짓을 하였다 함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하며 고생하였다 함이요, 물 없는 육지에 배를 띄우려고 하였다 함은 대동세계(大同世界)를 만들자는 것이며 때지어서 집안에서 음탕하게 놀았다함은 많은 무리와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손이 끊기었다 함은 도(道)가 갖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어 당우(唐虞)의 세상에 단주(丹朱)를 임금으로 삼았더라면 요복(要服)과 황복(荒服) 따위가 있을 것도 없고 만(蠻)과 이(夷)의 이름도 없으며 만리(萬里)가 지척(咫尺)같이 가까이 되어서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어늘 요와 순이 그 길을 막았느니라. (중략) 선세(仙世)에서는 단주가 세상의 운을 통할(統轄)하게 되느니라》(《천지만법전》, 52-53쪽)

34) 줄고, 해원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 167쪽.

자로서 정산이 1909년부터 1958년까지 50년간 포교를 했음이 나타난다. 이는 정산이 대두목 공사와 연관됨을 보여준다. 결국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본 정산 관련 논의들은 증산 화천 후 참동학의 전개를 말해준다.

한편 이상의 Ⅱ, Ⅲ장의 논의를 종합해서 볼 때, 종통의 계승하에 형성된 참동학의 해원과 인존(人尊)³⁵이라는 중심사상은 모든 우주적 존재에 대한 존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의 해원에서는 약소국으로 침략과 탄압을 받아 온 민중으로서의 조선인(朝鮮人)에 대한 존중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성사재인론에서는 동학의 인내천(人乃天)사상보다 차원 높게 승화된 인간 생명존중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즉 우주의 일을 인간이 이루어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으로 인간에게 한울님의 영성(靈性)이 내재되어 있다는 단계를 뛰어 넘어 이제는 인간이 화천한 증산으로부터 천강(天降)을 받아 개조(改造)되어 우주적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주체적 개체라는 천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구천(九天)에 있었던 증산(甌山)의 인신화현(人身化現)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신도(神道)로써, 인간을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천지공사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증산의 인간생명 존중의 정신을 보여 주는 면이다. 이러한 인간이해는 현재 지구화 시대라는 명제 아래에서, 문화 안에는 생명이 태어남, 죽음과 함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구체적인 거룩함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비대체성과 동정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구체적이며 제한된 존재로부터 깨닫게 만들고, 다양한 방식의 존재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선형적인 철학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선형적인 철학은 다양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인간은 모든 존재자 위에 있는 무(無)에 통달하였다고 본다. 새로운 지구화 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문화와 문화적인 충돌을 느낄 때, 생명 안의 무(無)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³⁶ 원(冤)을 풀어야 된다는 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윤리는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한 것이며, 우리 인류의 마음 밑바닥에 깔아 주지 않으면 안될 생명철학이기도 한 것이다.³⁷ 모든 인간이 일정한 종교적 계율 아래에서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주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가치를 부여받아 우주의 질서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주장은 조선후기 동학의 인내천을 필두로 하는 평등주의적 생명존중사상보다 고양된 위치에 서는 인존주의적(人尊主義的) 생명사상이다.

인간은 인간 이외의 외계 사물에 대한 외경과 동경심으로 그것을 인간의 세

35)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36) 장과, <무(無)아래의 생명-지구화시대에서의 생명의 의미->,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 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경기 2003자료집, 2003. 12, 129쪽.

37) 유병덕 편저,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 54쪽.

계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하늘의 관념을 천존(天尊), 땅의 관념을 지존(地尊)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전체구조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관계라면 인간이 인존(人尊)이라는 명제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또한 해원과 성사재인을 기저로 참동학을 통해 주장된 증산의 생명사상은 증산의 화천 후에도 종교적으로 계속 전개 발전되며 교리화 되어, 증산의 종통을 전수(傳受)한 정산에 의해 포교되었음도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정산 득도와 공부의 참동학적 의미이다.³⁹⁾

IV. 참동학 사상으로 본 정산의 포교행적

앞장에서 정산의 포교는 증산의 공사(公事)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며, 득도 후 포교를 통해 증산의 유지를 계승해 인계(人界)에서 인존(人尊) 시대의 기틀을 만드는 종교적 행적을 한 것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교는 1. 종통의 정통성 확보 2. 종단의 창건 3. 교조의 유지를 실행하는 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산의 포교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중 증산의 참동학 사상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기로 한다. 득도이전의 정산의 행적을 보면, 정산은 일제(日帝) 함방이 있기 한 해전인 1909년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나 만주 봉천지방으로 떠나는 부친을 따라 이주하였다. 봉천에서 정산은 기존 유불선의 종교를 공부하는데 이것은 정산이 증산의 계시로 득도하기 전, 당시 조선이 처한 내·외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방법을 찾는 수행의 과정이며 유불선을 두루 섭렵하는 기간이다. 한편 증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인물이 필요하여 증산은 정산에게 계시를 내려 득도하게 하였으며, 정산이 계시로 감오(感悟)한 도(道)는 이전 증산의 인간계에서의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삼계 대순의 진리이다. 이러한 정산의 득도는 포교 50년 공부 과정에서 50년의 9년째(1917년)에 있었으며, 나머지 41년과 비교하면 초기에 해당되는데 증산의 계시에 의한 정산의 득도는 이후 정산의 종교활동의 모든 체계를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산은 증산의 명을 계시로 계속해서 받으며 조국으로 돌아와 충남 안면도에 정착한 후 증산의 과거 유적지를 찾고 여러 행적들을 알게 된다. 정산의 득도 후에 증산은 자신의 도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해 정산으로 하여금 증산의 유적지를 방문케 하고 생시의 유품들을 통해 포교의 초석을 다지

38) 윤재근 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아름다운 세상, 1998, 188-190쪽.

39) 정산(鼎山)이후에는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전수(傳受)한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이 창건한 종단 <대순진리회(1969)>를 통해 전개·발전되었다.(《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5-13쪽 참조)

는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득도 후 정산의 행적은 증산의 명을 받아 일을 하고,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푸는 일이 주를 이룬다. 득도 전과 비교해서 득도 후는 증산의 대순한 진리를 펴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중 1925년의 종단 창건이 중요한데 이는 종단이 창건되어야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정하고 포교를 위한 종단 활동이 수행될 수 있어서이다. 도장의 건립과 함께 종교 건물 안에서 신도에 대한 각종의 교화가 이루어져 종교적 틀이 이루어진다. 증산에 대한 봉안과 교의체계가 공포(公布)되는데 교의체계는 종지(宗旨), 신조(信條), 목적(目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증산의 가르침을 구체화하고 포교의 새장을 열게 된다. 종단의 명칭은 무극도이고 도장은 전북 구태인에 위치했으며, 이후 무극도는 증산이 원시조직의 형태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한 것⁴⁰⁾과는 다르게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될 때까지 약 17년 간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 종단이 폐쇄된 후에 정산은 고향인 회문리(會文里)의 회룡재(廻龍齋)로 귀향해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 이상의 정산의 공부는 주요 행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기는 기존 종교의 공부, 2기는 득도와 종단 준비기, 3기는 종단 활동, 4기는 일제 탄압으로 포교 중지기, 5기는 포교의 재개 및 후계자 계승이다. 위의 총 5기의 시기에서 득도, 종단 창건, 후계 계승 등은 중요한 내용이 된다. 득도는 증산의 계시로 도(道)를 만나 정산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종단 창건은 신앙대상의 확장과 종교의 교의를 밝힌 것으로 그리고 증산의 화천과 함께 후계자에게로의 교권의 이동은 증산의 포교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위 5기로 나누어 본 기간에서 1기는 정산이 서세동점(西勢東漸)하에서 동양의 혼란과 조선의 일본에 의한 지배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아래 세상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시기이다. 2기는 증산의 계시로 득도를 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간이며, 3기는 정산이 종단을 창건해서 체계화된 교리를 세워나가던 시기이다. 4기는 포교 중지기이며, 5기는 정산 자신이 특정 대상을 해원해 주고 종통 계승자로서 신앙대상을 밝히고 인간 완성(도통군자)에 관한 몇 가지 행적을 수행한 기간이다.

이러한 시기들은 해원의 원리가 내재되어 성사제인을 지향하는 증산의 참동학 이념을 구현해간 기간임을 보여 주는데 특히 정산의 종교적 행적은 5기에 행한 포교 공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바 이제 그 시기의 공부 내용을 보기로 한다. 5기에 해당하는 해방 후 정산의 주요 행적은 1. 마하사 공부 2. 만동묘 방문 3. 해인사 공부 4. 동학사 공부 5. 쌍계사 공부 6.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함 7. 총 도전(都典)으로 박우당 임명 8. 백일 도수 후 정산의 화천 등으로 정리된다. 5기에서 정산의 주요 포교 활동은 증산의 신격위를 밝히고, 종통을 총도전

40)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180-191쪽 참조.

이었던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에게 전수하고, 신명을 해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앙 대상을 설명하고 정산이 신앙대상으로부터 종통을 전수 받아 신앙대상의 가르침을 전한 일이 된다. 이와 함께 정산의 위상을 밝힌 일의 하나로 마하사(摩訶寺)에서의 공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불상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정산의 위상이 불교적 범술보다 우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⁴¹⁾ 또한 이외에 이 기간에는 화재 소화(消火)의 이적(異蹟), 신도(信徒)의 동(動)을 예언,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을 도장에 비치, 조수(潮水)의 이치를 밝히고 몇 가지 설법을 행한 일들이 있었다. 이중 해방 후 정산이 공부한 유적지들 가운데 참동학으로부터 주장된 조선 해원, 도통군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인 만동묘, 해인사, 마하사 등을 중심으로 참동학의 유지(遺志)가 정산을 통해 이루어진 양상을 보기로 한다.

만동묘 공부는 조선에 황극신(皇極神)이 주재하는 것과 연관되고 해인사는 증산의 신격위와 도통에 관해 설명한 곳이다. 마하사에서는 정산의 공부로 범당의 불상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정산이 새로운 시대에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종통을 전수 받아 증산의 종교적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펴게 될 인물임을 나타내며, 정산이 증산의 종통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장소가 되는데, 이는 단주수명(丹朱受命)에 의한 해원⁴²⁾과 관계되어 조선 해원, 도통군자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 만동묘, 해인사, 마하사에서의 정산의 공부를 중심으로 정산의 포교행적을 참동학의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먼저 증산이 행했던 만동묘 관련 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어느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 고 말씀 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 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宋尤庵)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서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 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공사 3장 22절)

위의 인용문은 증산이 조선으로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온 내용이다. 만동묘는 증산이 황극신을 옮겨오는 데 역사적 연관성을 갖는 곳으로 나타난다. 황극신은

41) 해방 후 정산의 공부는 절을 찾아 이루어진 것이 한가지 특징이다. 각 절에서의 공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마하사 공부 - 불상이 고개를 숙임, 2. 해인사 공부 - 해인과 증산의 신격위를 밝힘, 3. 동학사 공부 - 신명 해원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충의지사(忠義之士)들에 대한 해원>, 4. 쌍계사 공부 - 영주각과 관련.

42)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공사 2장 3절)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위치에 해당되는 신으로 당시 중국의 청(淸)나라 왕이었던 광서제(1874-1908)에게 응기(應起)해 있었으나 조선으로 황극신을 옮겨온다는 것은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되어 천하의 혼란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참동학을 통해 조선을 해원하고 도통군자를 내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증산의 주장과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⁴³⁾ 그런데 만동묘 공사와 관련해서 정산이 갑오년(1954)에 만동묘를 방문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박한경(朴漢慶)이 도주의 부르심을 받고 청주의 근방에 있는 청천면 화양동의 만동묘(萬東廟)를 찾으니 건물은 왜정 때에 없어지고 빈터만이 남아있는 사정을 도주께 아뢰었도다. 또 그는 도주의 분부를 좇아 류한규(柳漢圭)를 데리고 화양동에 가서 도주께서 거쳐하실 곳을 마련하고 기다렸으되 다음 기회에 미루신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도다. 신묘년 삼월에 있었던 일이니라.(교운 2장 49절)

갑오년 삼월에 도주께서 안상익(安商翊) 외 네명을 대동하고 청천에 가서서 황극신(皇極神)이 봉안되어 있는 만동묘 유지(遺趾)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서실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중에 폭풍과 뇌성 벽력이 크게 일어 산악이 무너지는 듯 하니라. 다음 날에 숭정황제어필(崇禎皇帝御筆)의 비례부동(非禮不動)이 새겨 있는 침성대 아래쪽 암벽의 좌편에 닫혀있던 석문(石門)이 두 쪽으로 갈라져 내리고 그 안의 옥조빙호(玉藻氷壺)의 네자와 만력어필(萬曆御筆)의 네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전하였느니라.(교운 2장 50절)

위의 인용문은 신묘년에 정산의 명(命)으로 우당이 만동묘를 방문하고 그 후 갑자년에 정산이 만동묘를 직접 방문한 내용이다. 만동묘를 정산이 방문한 후 근처 침성대 아래 석문이 열리고 글이 드러난 것은 정산이 혼란에 빠진 천하를 바로 잡기 위한 증산의 황극신 공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정산의 일이 증산의 뜻을 이어 천하를 광정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정산은 증산의 중통을 받아 대두목 공사를 수행해서 도통을 주는 일과도 일면 관계되는데 이것은 증산이 참동학에서 밝힌 도통군자가 조선에서 출현한다는 일과 연관된 일이며, 이는 황극신을 옮겨 온 만동묘 관련 공사와도 그 의미가 밀접히 닿아 있다. 다음으로 해인사에 대해 보기로 한다. 정산이 갑오년(1954)에 해인사를 방문한 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만동묘와 관련 《상계계서 청주(淸州) 만동묘(萬東廟)에 가서 청국공사를 행하려 하나 길이 멀고 왕래하기 어렵고 불편하므로 청도원(淸道院)에서 공사를 행하리라 하시고 청도원 류찬명의 집에 이르러 천지 대신문을 열고 공사를 행하셨도다.》(공사 2장 6절)는 구절은 황극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청국 공사가 만동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청도원 류찬명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만동묘가 과거 역사와 관련된 곳이었다면 증산의 천지공사에서 새로운 장소로 청도원 류찬명의 집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증산의 사상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면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55절)

정산은 해인사에 다녀온 후 도통과 증산의 신격위에 관해 말하였다. 도통에 대해 정산이 언급한 것은 해인과 관련지어 앞장에서 언급한 대두목, 단주수명 등과 함께 정산이 도통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산은 해인(海印)의 바다 해(海)자에서 바다의 성질을 수기(水氣)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며, 증산의 화천 후 무극도(無極道)에서 정한 증산의 신격위(神格位)에서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의 의미를 전기(電氣)를 주관하는 신계 위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증산의 신격위를 설명한 것은 증산으로부터 계시에 의해 종통(宗統)을 전수 받은 이로서 신앙대상의 권능과 신적 위치에서 증산이 주관하는 일을 정산이 천명한 것이 된다. 이에 정산의 포교 과정에서 해인사를 찾은 일을 증산의 천지공사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현 정산의 일이 참동학으로 시작된 증산의 종교적 유지(遺志)를 이어 수행된 것임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정산의 마하사에서의 공부를 보기로 한다. 기축년(1949년)에 이루어진 정산의 부산 동래 마하사에서의 공부는 아래와 같다.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래 마하사의 방 한간에서 정화수 스물 네그릇을 받들고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이광석(李光石)이 대웅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원 염불을 올리니라. 사십 구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녀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교운 2장 47절)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그 자리에서 少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⁴⁴⁾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48절)

그런데 위 한시(漢詩)는 아래의 증산의 두 수의 한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44) 소년의 재주와 기운은 천마를 뽑았고 손에는 용천검을 잡고 몇 해를 갈았던가. 세계가 있고 이 산도 나왔네 기강이 금천에 돌아 물상을 감춰 빛나는 구나. 응당 모름지기 태호 복희씨에게 근원해 으뜸이 되는데 도인들은 무슨 일로 부처의 노래를 많이 하는가.

해 합쳐 말한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때 내장산에 가셨을 때에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⁴⁵⁾라고 읊으셨도다.(행록 2장 5절)

상제께서 김송환에게 시 한 수를 외워 주셨도다. 少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石上梧桐知發響 音中律呂有餘和 口傳三代詩書教 文起春秋道德波 皮幣已成賢士價 賈生何事怨長沙⁴⁶⁾(행록 4장 5절)

위의 증산이 지은 두 편의 한시는 각각 내장산에서 지은 것과 증산의 종도였던 김송환에게 지어 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에게 와서 두 수의 한시가 정산의 마하사 공부에서 합쳐져서 정산의 마하사에서의 공부의 의미를 상징성을 갖고 대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산이 내장산(內藏山)에서 읊은 한시는 당대 도를 찾는 이들이 불가(佛歌)를 많이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도의 시작이 북희씨로부터 나왔음을 밝힌 것이다. 이후 부산 동래 마하사에서는 정산의 공부로 불상이 고개를 숙인 일이 일어났다. 불상이 고개를 숙인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상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정산에게 불(佛)들이 귀의하여 동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하여 이는 불교적 진리가 정산에게 귀속되어 정산의 사상 속에서 그 위상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정산이 증산과의 연관성 속에서 공부를 하고 설법을 내린 것은 득도 후 증산의 유적지를 찾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산의 종통 전수의 정통성과 함께 증산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일이 된다. 무극도 창도 전에는 정산이 증산의 명을 받는 일과 증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자신의 위상을 증산의 유품(封書)을 통해 알고 그에 맞는 공부를 수행했다면, 해방 후 정산의 행적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을 갖고 증산과 정산과의 연관성을 종통을 통해 밝힌 것이 된다. 한편 정산은 증산의 해원공사를 이어 단종과 사육신등에 대한 해원 공부를 하게 되는데⁴⁷⁾ 이는 해원을 축으로 정산의 포교가 진행됨을 보여

45) 세계가 있고 이 산도 나왔네 기강이 금천에 돌아 물상을 감춰 빛나는 구나. 응당 모름지기 태호 북희씨에게 근원해 으뜸이 되는데 도인들은 무슨 일로 부처의 노래를 많이 하는가.

46) 소년의 재주와 기운은 천마를 뽑았고 손에는 용천검을 잡고 몇 해를 갈았던가. 돌위에 오동은 소리 낼 줄을 아니 음 가운데 울려서 화사함이 남음이 있네. 입으로 삼대의 시서의 가르침을 전하니 문물이 역사에 일어나 도덕이 물결치네. 가족과 비단이 이미 이루어져 어진 선비가 가치가 있으니 가생(賈生, 賈誼 B.C 200 - B.C 168)이 무슨 일로 장사의 일(장사 땅으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죽음)을 원망하리오

47) 병신년 삼월에 박한경은 도주의 분부를 좇아 류철규, 박종순과 함께 정하신 바에 따라 공주 동계사(東鶴寺)에 이르렀도다. 절의 경내에 동계사 삼은각(三隱閣)과 단종왕의 숙모전(肅慕殿)이 있고 생육신과 사육신을 추배한 동관리자는 사육신의 한사람인 박팽년의 후손이고 (중략)

준다. 또한 정산은 신도들의 수도 공부에 대한 법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도들이 도를 통해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수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⁴⁸⁾ 나아가 이 기간에는 정산의 일을 맡아 할 총도전이 임명되며⁴⁹⁾ 총도전이었던 우당은 정산의 화천 시 종통을 유명(遺命)으로 전수 받아 1969년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1969)를 창건한다. 대순진리회는 정산의 무극도 당시 이루어진 교리를 근간으로 증산의 참동학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포교하게 되는데⁵⁰⁾, 이 일도 증산의 교운 공사에 의한 포교 활동의 연장이 된다. 결론적으로 정산의 만동묘, 해인사, 마하사 등에서의 종교적 행적을 통해 볼 때 세 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적은 증산이 참동학을 기치로 세상에 이루고자했던 일을 기저(基底)로 해서 수행된 해원과 인간 완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인 것이다.

V. 결론

증산은 구천에서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을 풀어주기 위해 인계에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단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상황은 외세의 침탈 하에 조선 내부의 봉건적 요소가 무너지며 새로운 일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증산은 당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수운에게 계시를 내려 주었으며 후에 동학혁명은 조선 사회의 문제를 외부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청일의 대립하에 조선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단서를 주었다. 증산은 당대 동학의 실패를 딛고 해원상생을 기치로 동학과 다른 측면에서 일어나 참동학을 주장하였다. 참동학의 지향점은 크게 조선의 해원과 도통군자의 산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었다. 이중 조선의 해원은 후일 조선이 상등국(上等國)이 되는 것인데 단주의 해원과 관련이 있

도주께서는 이곳을 두루 살피셨도다. 그리고 동학사 영화실에서 이랫 동안의 공부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길 이번 공부는 신명해원(神明解冤)을 위주한 것이라고 이르셨도다.(교운 2장 57절)

48) 도주께서 이해 十一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三十六명으로 하며 시학은五日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十五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四十五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교운 2장 62절)

49) 도주께서 二월 하순경에 최고 간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니 그는 총도전이니라. 종전의 시봉 도전과는 전혀 다르니라”고 분부를 내리셨도다.(교운 2장 64절)

50) 박우당(朴牛堂)의 대순진리회는 정산의 유업을 이어 서울 중곡동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한다. 대순진리회의 포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삼대기본사업(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의 강화이다. 대순진리회는 도장을 다섯 곳(서울 중곡동, 경기도 여주, 제주도, 경기도 포천, 강원도 속초)에 설립하여 교세가 대대적으로 발전되었다. 대(對)사회사업도 일취월장 확장되어 종단이 사회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증산-정산으로 이어지는 가르침을 널리 펴는 새로운 전기를 열게 되었다.

다. 그리고 단주의 해원은 증산의 종통(宗統)을 이어 증산의 공사인 포교를 이룰 인물로 연결성을 갖는다. 즉 단주의 수명(受命)은 정산의 종통 계승과 그에 의한 1909년부터 1958년까지의 50년 동안의 포교로 귀결된다.

다음으로 참동학의 주장인 도통군자의 산출이라는 면과 관련해서 볼 때 증산은 정산에게 계시로서 득도케 하였다. 그런데 정산의 계시는 수운의 계시와는 다른 면을 갖는다. 그것은 증산의 수운에게의 계시가 신적 상태에서 금산사 미륵금불에서 내린 계시라면, 정산에게의 계시는 증산의 인신강세(人身降世)와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인계에서 행하고 화천(化天)하여 계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정산에게의 계시는 천신적(天神的) 위치에 있었던 증산이 최초로 인신(人身)으로 화현(化現)하여 우주적 구원의 행적을 이룸으로써 후천(後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구축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을 가능케 하는 도통군자의 출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면을 담고 있다. 정산의 포교공부를 증산과의 관계 및 정산의 공부와 관련해서 크게 5기로 나누어 볼 때 5기에 해당하는 해방 후 종교 활동은 다른 4기의 기간과 비교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참동학의 두 가지 중심 주장인 조선의 해원과 도통군자의 산출이라는 면을 이룬 기간이 된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증산의 이상사회의 건설에서 조선후기 문제의 해결은 그 시점이 되어 참동학으로 구체화되었다. 증산의 구원의 행적은 수운에게의 계시로부터 시작하여 증산의 강세 후 참동학의 주장아래 천지공사를 단행하였다. 화천 후 증산은 정산에게 계시를 내려 참동학의 사상을 계속적으로 포교 50년 공부의 도수를 이룬 정산을 통해 가시화 시켜 나갔으며, 참동학의 유지(遺志)는 종통 계승자(鼎山, 牛堂)에 의해 해방 후 종교활동에서 추진되어 새로운 체제의 후천선경이라는 유기적(有機的)인 우주를 이루는 것으로 정리된다.

《參考文獻》

-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고남식, 해원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3, 2.
 ———,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김지하, 《동학 이야기》, 솔, 2000.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박사논문, 1995.
 김홍철, 〈증산교 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IV, 연세대 출판사, 1992.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199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저, 《전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연구위원 편저, 《대순논집》,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류병덕 편저,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
- 배용덕, 《한민족과 천지공사》, 증산진법회, 1976.
- 윤재근 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아름다운 세상, 1998.
-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상생사, 1926.
- 임일송, 《천지만법전》, 움직이는 책, 1993.
- 장 과, 〈무(無)아래의 생명-지구화시대에서의 생명의 의미-〉,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경기 2003자료집, 2003, 12.
- 최동희, 〈수운의 기본사상과 그 상황〉,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일지사, 1985.
-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1996.